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pm
- 주일 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간 성경 공부 Bible Study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 훈련 Discipleship Class / Mon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

섬김의 달
 믿음 성장과 성숙의 주간

건강한 믿음 성장의 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 앞으로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예배

기도 김 훈 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성경 말씀

말씀과 결단

창세기 16:1-16 (구약 19 쪽)

"우리가 망친 것도 회복 시키는 하나님"

말씀 선포 김 성 배 목사

결단의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304장)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결단의 기도

헌 금 최 선 윤 / 박 진 성 집사

삶과 세상 속으로

*봉헌 찬송 213장 "나의 보화 드리니"(4절)

*찬 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축복 기도 김 성 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목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금 요 찬 양 예 배

찬 양 과 기도

말씀 사무엘상 11:1~15

사울 왕의 첫 승리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저항해야 할 '악'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의 유무로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제 삶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도 아닌데,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평가하는 악의 소리에 저항하지 못한 채 기가 팍 죽어버리는 오늘과 같은 모습이지요.

오늘 다시 읽은 <래디컬>(데이비드 플렛, 두란노)도 교회가 물질주의에 정면으로 저항해야 함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므로, 교회 안에 재능 있는 사람이 없고 재정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해도, 누군가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힌다면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에 기대할 수 있다면 단 한 달 만에라도, 백 년 동안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곱씹다 보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립되어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축워지기 때문에 마음 약해지는 이 계절,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고,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하는 용사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나쁜 생각들은 썩 꺼져라!"라고 저항하며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 계절, 승리는 커녕 또 한 번 나자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주님은 또 한 번 저를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디 제가 주님께는 "Yes", 악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는 멋진 용사가 되도록 붙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한근영

"주님께는 Yes, 악에게는 No"

2019. 11. 21. 목

주님께는 Yes, 악에게는 No

겨울은 확실히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계절입니다. 몸 아픈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함이 더욱 실감 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요.

오늘 장을 보다가, 돈 걱정 없이 싱싱한 식재료 사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맛있는 밥 차려주고, 따뜻하고 예쁜 외투들을 사다가 "이거 선물~" 하고 건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나이 오십 넘어서까지 늘 빈약한 제 주머니 사정에 오늘은 조금 쓸쓸했습니다. 추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뭣뭣이 자꾸만 생각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에 QT 책을 자꾸 뒤적거렸습니다. 아침에 QT 하면서 영적 도전을 받았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뭐였더라? 뭔가 정신이 번쩍 났었는데?'

책을 펼쳐보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제목에서부터 '맛아'라고 맛장구를 치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믿음을 그으며 동의했던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저술 의도 중 "둘째, 교회로 하여금 저항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는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선택하신 주님께는 항상 "Yes"라고 답하지만, 악한 존재와 사상과 생각에 대해서는 "No"라고 저항할 줄 알아야 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도 악한 것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 진정한 승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역 / 행사

8월 도약의 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2023 주제 말씀 :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2023 표어 : 성장하는 교회

1. **성장/성숙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신앙 성장을 통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2. **노동절 일일 수련회** 지난 주일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친교하는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참여에 감사합니다.
3. **Oikos 친교/사역** 17일 김훈태/신실 집사 가정
4. **성경1독운동** 모두 참여합시다. (담당: 최선운 집사)
5. **영성 생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됩시다.
6. **연합사역** 9월 22일 살롬교회와 금요찬양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7. **Youth** 사역 예배를 9:30에 가지고 피크니을 갑니다.
8. **선교** 김성배 목사, 인도 단기 선교 사역 (10/1-10/10)

냉인축하

이정운 (30)

9월 사역

성장/성숙 주간(9/10-16), Oikos 친교/사역 (17)
 연합 금요 찬양예배 (9/15), 소금과 빛된 주간 (17-23)
 선교 주일/ 사역친교 (24)

❖ 한 주간의 말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시편 37:5

망스름 개요 창세기 16:1-16 / 우리가 망친 것도 회복시키는 하나님

사래는 하나님을 뜻과 계획을 잘 못 해석해 가정의 평화를 깨 불화를 초래하고, 하갈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 여주인을 경멸한다.

원망과 책임을 떠맡은 아브람은 모든 권한을 사래에게 위임했을 때, 사래를 피해 광야로 도망간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같은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브엘라해로이"를 고백한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옆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망스름 요약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내 사래는 10년을 기다린 후,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기로 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 하고 그는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당시 문화대로 하갈을 아내로 맞았다.

하갈이 잉태하자 사래를 경멸한다. 사래는 자신이 초래한 이 사태의 책임을 아브람에게 떠넘긴다. 반면, 하갈은 여주인의 배려를 잊고, 자신의 신분을 잊고, 주인을 멸시했다.

아브람이 사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자, 사래는 하갈을 학대한다. 이에 하갈은 도망한다. 그 고통에서 하갈은 갈 곳이 없었다. 그때 광야의 샘 옆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하갈은 자신을 돌아본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어야하는지를 깨닫는다. 여호와와 사자가 하갈에게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며, 태중 아들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자, 하갈은 하나님은 자신처럼 천한 사람도 돌보심을 깨닫는다. 하갈은 겸손하라는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소망이 필요한 이에게 소망을, 소외 받는 이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갈을 살피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피시지 않겠는가? 광야에 혼자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외로운가. 막막하고 철저히 홀로 광야에 있을 때, 사래가 고백한 "브엘라해로이"의 은혜를 누리야 할 때가 다. 함께 하시며 나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높이자.

기도제목

-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 섬기는 목회자의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 (10/1-10/10)
-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Youth Ministry의 자리매김을 위해 특히, 해외 파병 근무 중인 이정운 군의 안전을 위해
-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 선교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튀르키예 박진란 선교사/네팔, 뉴욕 박은주 선교사
- 교회 연합과 협력 사역을 위해

예배 섬김이

9월 10일 김 훈 태 집사

주일 기도 인도

17일 박 진 성 집사

24일 최 선 윤 집사

10월 1일 구 민 집사

주일 헌금 위원

9월 10일 김 훈 태 / 최 선 윤 집사

17일 최 선 윤 / 김 훈 태 집사

24일 구 은 강 / 박 진 성 집사

10월 1일 박 진 성 / 구 은 강 집사

주일 안내

9월 최 내 권 집사

10월 김 훈 태 집사

성경공부 / 기도 모임

주 일 오전 11:00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약속

월요일 오전 10:00 교회 성장

화요일 저녁 8:00 인물 성경공부/Zoom

섬기는 사역자

지도 목사(Lead Pastor) 김성배 목사

찬양 인도자(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교육전도사(Youth Pastor) Jacob Kim 전도사